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배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준승치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u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해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C2 EDUCATION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914) 946-2324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 (Francisco) 영 희 (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 하 탄 (212) 947-8382(B) 뉴저지 (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스테판노)지과 콜롬비아 지과대학교 졸업 엘름hurst(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완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렌,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i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파크 (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제1686호

2011, 10, 30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마태 23, 1-12)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연중 제31주일

ㄹ 입당송

(시편 38(37), 22-23)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대영광송>

ㄹ 제1독서(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14-2,2-8-10)

14 정녕 나는 위대한 임금이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민족들은 나의 이름을 경외한다.

21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2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8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10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히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131(130), 1.2.3)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1.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2.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떼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습니다. ◎

3.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 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ㄹ 제2독서 (우리는 하느님의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2,7-9.13)

형제 여러분, 우리가 7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8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9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
하였습니다. 13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마태 23,9-10)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ㄹ 복 음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1-12)

1 그대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3 그러나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4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5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6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7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8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9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10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11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영성체송

(시편 16(15),11)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0/30 8시	김 미수	윤 광석	윤 기애	정 태영
11시	김 철	김 문배	김 옥선	윤 정숙
11/ 6 8시	이 상식	김 부균	방 경숙	박 미순
11시	양 명상	박 증환	박 정이	양 정남

복 사 : 윤 정훈 & 조 중형 엄 수연 & 김 크리스티나

봉헌자 : 주봉길&우상영 가족 다음주 : 긴여철&주성문 가족

헌금봉사 : 황금궁전 Pr 다음주 : 다윗의 탑 Pr

운전봉사 : 방 문덕 다음주 : 이 준섭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생미사) : 황보테레사, 연령희

김엠마누엘[일규] 봉헌

최그라시아[인숙](생미사) : 이안젤라[효순] 봉헌

오제인[은자](생미사) : 이안젤라[효순] 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한세실리아[영희](생미사) : 찬송하을 어머니 Pr 봉헌

김자환(생미사) : 양엔그라시아[현섭] 봉헌

한복임(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봉헌

한재용(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봉헌

부모님(연미사) : 양리카드로[경식] 봉헌

조웅상(연미사) : 임베로니카 봉헌

임레오[재호](연미사) : 임베로니카 봉헌

허스테파노[문호](연미사) : 허스테파노 가족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성가

입당 : 로사리오기도 드릴 때 (성가 271)

봉헌 :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가 212)

성체 : 사랑의 신비(성가 174)

파견 : 찬송하라 주님의 이름을 (성가 437)



교회 소식

(1) 위령 성월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부모형제들과 특히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저녁 기도 후 위령성월(기도서 37P)를 바치도록 합시다.

(2) 모든성인 대축일

11월1일(화) 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입니다. 저녁8시30분 에 미사가 있습니다. 본명 축일이 없는 사람은 이날이 본명축일입니다.

(3) 위령의 날

11월2일(수) 은 위령의 날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특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부모형제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저녁 8시30분 에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와 영성체를 하고 주님의 기도를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묘지 방문

11월6일(주일) 11시 미사 후 2시에 연령희 주관으로 교구묘지에서 돌아가신 우리본당 신자들을 위한 연미사에 이어 각 묘지를 축성하고 꽃을 봉헌합니다. 많은 신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5) 구역회

올해는 공부하는 해 입니다. 모든 신자 분들은 구역회에 참석합니다.

11월 주제 : “ 감사 생활 ” (신앙생활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을 하느님께 바치셨다.

② 청교도들은 하느님께 감사하고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③ 우리가정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하자

※ 모든 구역모임을 추수감사 11월20일(주일) 에 하도록 합시다.

(6) 성지순례 소식

올해 에집트 사태로 취소된 제1코스(이스라엘, 에집트, 요르단) 성지순례를 2012년 1월31일-2월11일 에 갑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아리랑 여행사 (212) 563-3350 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무료 건강검진 소식

마운트 사이나이 심장 센타(Mount Sinai Medical Center Cardiac Catherization Lap)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11월13일(주일) 아침 9시부터 실시합니다.

① 혈압 ② 당뇨병, 콜레스테롤 검사 ③ 심전도 검사 ④ 건강상담

(8) 썸머타임 해지

다음주 11월6일(주일)부터 썸머 타임이 해지됩니다. 6일 새벽 2시를 1시로 맞추시어 일과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9)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오늘 30일(주일)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식이 11시미사후 있으며, 친교실에서 축하파티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 분들에게 점심이 제공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본당신부님을 위해 모두 기도 합시다.

♥ 김장철을 맞아 **울뜨레야 기금마련** 것갈(새우젓)을 오늘(주일) 판매합니다. (빈 김치 병을 수집합니다.)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 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이번달(10월) 커피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브루스 및 맨하탄 구역입니다. 다음달(11월)은 동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1,723.00

교육헌금 : \$ 2,407.65 2차헌금 : \$ 437.00

교 무 금 : \$ 1,470.00

변대수(완납) 조강희(완납) 김경심 (10) 추성태(7-9)

정강수(완납) 김영애(9-10) 신대철(10) 이동수(9-10)

김문자(11) 김진두(10-11)

다문화 가정

나의 한 친구는 아들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는다고 항상 울상이더니 이제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또 울상이다. 그녀의 아들은 그 동안 처녀들을 수없이 소개받았지만, 모두 다 자기 타입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다. 그 엄마는 아들이 어서 결혼을 하기만 바라는 마음에서 외국여자인, 나이가 많은 여자이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환영하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아들에게 여자 친구가 생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처녀가 안식교에 다닐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아주 열심한 신자들이고, 그 처녀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다고 한다. 엄마는 처녀가 안식교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그 처녀하고는 안 된다 하고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처녀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했다. 그랬더니 아들은 당황해 하면서 그 동안 아무나 자기가 좋다고만 하면 엄마도 좋다고 하더니 종교가 다르다고 결혼을 반대하느냐고 하면서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 했다. 그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을 하면서 하는 말이 보통 프로테스탄트나, 차라리 불교신자라면 모르겠는데 안식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전에 자기 친구하나가 안식교 신자였는데 교회법규에 얽매어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도, 나이가 많은 여자도 환영하겠다고 그 친구는 자기가 받아드릴수 없는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다. 듣고 보니 그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 자신 할 말을 잃었다. 근래에 와서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한국인들이 타 민족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보니 한 가정에 문화가 다른 식구들이 살게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한국은 단일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단일민족이라는데 대해 자부심마저 가졌었는데 몇 십 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타민족과 결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 같다. 비단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곳 미국에서도 그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타민족과 결혼을 하는가? 나의 친구들 중에도 거의가 다 한국인이 아닌 타 민족 사위나 며느리를 한둘 식은 두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문화 가정은 다른 문화를 존중해주는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형성한 가정도 어찌면 다문화 가정이고 그리고 보면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기에 앞서 우선 나의 종교, 천주교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아울러서 타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야 될 것 같다.

우 몽은